



3면

민주당대표 후보들 "전북발전 선봉장"

전주매일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음 3월 10일) 제27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노을대교 건설' 정치권에 지원 요청

전북도, 국가계획 반영 등 내년 국가예산 반영 위해 지역·연고 의원에 건의

기재부 제출 기한 내달까지 송 지사 중심으로 총력전

전북도가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20일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국회의 문을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내년 국가예산 및 도정예산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요청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가 들고 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부안과 고창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해상교량 7.5km를 포함해 총 8.9km 구간의 2차로 건설사업이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두 시·군간 이동거리가 68km에서 7.5km로 대폭 단축되고, 시간도 70분에서 10분으로 절감된다.

또한 새만금 변산반도와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한빛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대피로 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을대교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토·국지도 5

개년 계획 전북도 후보대상 사업에 노을대교가 선정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해 4월부터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5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사업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이 6월 중에 확정된다.

도는 이날 국회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대상 20개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도는 이외에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GMP기반 농축산업 미생물 CRO 지원사업 등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국가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점 사업에 대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5월 3일에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유호상 기자

모판에서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벼



절기상 곡우(穀雨)를 맞이한 20일 전주 육묘장에서 관개지들이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벼 모판을 정리하고 있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박차'

도, 국내 체류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우선 활용 등... 영농철 인력난 해소 기대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남가족(F-3 비자)이나 고용허가제(E-9 비자) 등 기간 민로로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가와 매칭을 통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한다. 각 시·군에 신청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올해 3월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소 1개월~최장 13개월

간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던 법무부의 송출국 중앙정부 귀국보증 등의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6개 시·군에 464명을 배정받았으나, 송출국 중앙정부의 '귀국보증' 요구로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이 전무했다.

'귀국보증'은 코로나19에 따라 외국

인의 귀국을 제한하는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는 상대국이 계절 근로가 종료된 자국민의 재입국을 받아줄 것을 약속하는 서류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무부는 국내외 지자체 간 MOU를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시 송출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귀국보증도 인정하기로 했고, 결혼이민자 친척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경우 귀국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의 근무처를 기존

3~5개월 이상에서 한 달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 여러 농가가 1명의 계절근로자를 돌아가면서 고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큰 장애물이 해소됨으로써 시·군의 계절근로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무주군(무주농협)에서 도입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제도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요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국인 격리비용(14일) 일부 지원도 검토한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